

“천도재 핵심은 망자 깨우침 유도”

구미래 실장 비교민속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천도제)가 조제사 등 전국 사찰에서 봉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극히 방편적인 천도재라 할지라도 그 핵심은 망자에게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전할까 깨우침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구미래 성보문화재연구원 기획연구실장은 5월 22~23일 강남대에서 열린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일생에 대한 불교적 관념과 불교 일생의례의 특성’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구 기획연구실장은 “불교적 생사관은 사람이 죽으면 중유(中有)를 지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라

며 “불교에서 화장(火葬)하는 것도 육신을 이승에서 빌려 입은 ‘옷’으로 보아 헌옷과 같은 몸을 불태워 이승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끊고 새 옷의 주인이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미래 기획연구실장은 “불교에서는 일생의 범주를 벗어나서도 의례가 지속된다”며 “거듭된 의례는 ‘업’을 회색시켜 이후 거듭되는 삶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실장은 천도재 횃수와 기간 등에 대해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교식 상제(喪祭)를 수용해 통일시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명상, 심리치료 활용 제시

인경 스님 “ACT치료법 간화선과 유사하다” 주장

경제적 어려움 등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이가 많다.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노무현 前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도 개인적 고난과 역경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불교는 인간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안을 준다.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정신에서 답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불교가 ‘마음공부’라 불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불교적 명상은 심리치료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최근 명상치료법은 치유기법에 따라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프로그램(MBSR)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수용과 참여치료(ACT) 등으로 나뉜다.

5월 23일 불교심리치료와 관련한 학술행사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운영위원장 미상)는 각각 동국대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명상치료학회가 ‘명상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평가’를 주제로 연 제5차 학술발표회에서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은 수용 및 전념치료(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를, 한자경 교수(이화여대)는 마음챙김에 기초한 인지 치료(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MBCT)를 다뤘고, 임승택 교수(경북대)는 현대 심리치료에서의 사띠(sati) 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인경 스님은 주제발표 ‘수용과 전념치료(ACT)에서의 명상적응’에서 ACT 치료법이 간화선이나 유식불교의 삼삼설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ACT는 수용(Acceptance)과 전념(Commitment)을 강조하는 심리치료법이다. 1950년대 등장한 행동치료와 1970년대의 인지치료에 이어 최근 등장했다. 주로 공



한국명상치료학회 회장 인경 스님.

황발작, 광장공포, 외상 후 스트레스, 강박증, 범불안 장애 등에 활용된다.

ACT는 ①회피로부터 수용 ②응답으로부터 탈출 ③개념적 자아로부터 문맥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자각 ④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현재에 집중하기 ⑤가치결어로부터 가치탐색 ⑥충동적 반응으로부터 행동전념으로 진행된다.

인경 스님은 “ACT는 1단계 회피로부터의 수용, 2단계 ‘수용’ ‘가치선택’과 ‘행동’이 ACT의 핵심과제”라며 “개념적 자아에서 과정적 자아를 거쳐 문맥적 자아로 나아가는 ACT와 집착경험에서 관계경험을 지나 진실경험으로 완성되는 유식불교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간화선에서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질문은 ACT의 문맥적 자아와 비슷하다”며 “선문답이 갖는 심리치료적인 의미를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자경 교수는 ‘불교의 명상과 서양의 명상인지치료(MBCT)’를 통해 불교에서 연기(緣起)의 유전문과 환멸문이 명상인지치료법과 다르지 않음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불교에서 연기의 유전문은 생각과 느낌, 망상과 느낌의 순환을 보여준다. 불교의 수행은 이러한 순환을 끊고 그 순환고리 바깥으로 나오려는 환멸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자경 교수는 “모든 문

제를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불교적 인식이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에만 국한된 서양의 명상 심리치료법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말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승택 교수는 ‘사띠(Sati) 개념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재검토에서 심리치료학계에 난립된 사띠 개념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임 교수는 “현대적 심리치료법에 활용된 사띠 개념이 충분한 근거를 지닌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대심리치료에서의 사띠가 ①포괄적이며 이질적 내용들 간의 간극이 크다는 점 ②사띠의 인지적 효능을 지나치게 확산해 열의적 측면 등이 간과된 점 ③겉으로 드러난 명증에만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임승택 교수는 “사띠 개념의 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계속된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명상, 불교, 자아초월심리학’을 주제로 개최한 2009년 봄 학술대회에는 김제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와 서광 스님(서울불교대학원대학 초빙교수)이 발표했다.

김제성 교수는 ‘명상연구의 역사와 현황’에서 명상을 △종교적 전통 △자기컨트롤 기법 △주의 집중법 △의식단련의 측면으로 분류했다.

이어 김 교수는 명상을 집중명상과 통찰명상(또는 마음챙김)으로 설명했다.

서광 스님은 ‘자아초월심리학의 역사와 자아초월심리학 관점에서 본 유식오위의 수행모델’을 발표했다.

스님은 “<유식30송>은 불교사상의 중추이며, 불교적 정신치료 이론의 정수다. 하지만 <유식30송>이 갖고 있는 치료적·수행적 가치에 비해 실제 심리치료 영역에서 연구·활용되는 것은 전무하다”라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상월 조사 1922년 태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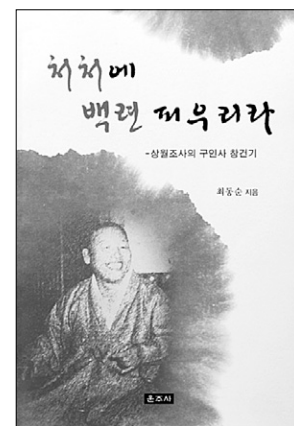
최동순 연구교수 ‘처처에...’서 밝혀

천태종조 상월 조사(1922~1974)의 탄생년도를 비롯한 기존 자료의 오류가 밝혀져 천태종학 연구가 새 전기를 맞게 됐다.

천태종학자 최동순 연구교수는 최근 발간한 <처처에 백련 피우리라>(운주사 펴)에서 상월 조사의 생애 전반을 수정·재조명했다.

그가 책에서 새롭게 밝힌 내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조사의 탄생연도다.

최동순 연구교수는 “이제까지 1911년 출생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탄생연도는 1922년이었다”면서 “어린 나이로는 대중을 교화할 수



최동순 연구교수가 저술한 <처처에 백련 피우리라>.

없다는 어려움에서 방편으로 나이를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최 연구교수는 △연령을 올리는 방편과정에서 상월 조사의 속명이 준각(準覺)에서 준동(準東)으로 바뀐 △서당교육 외에도 신교육 수학 △1943년 일제 소백산 정좌과정

확인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한편, 최동순 연구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5월 30일 동국대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02)926-8361

조동섭 기자

녹유사천왕상 등 유물 한 자리에

국립경주博 26일부터 ‘사천왕사’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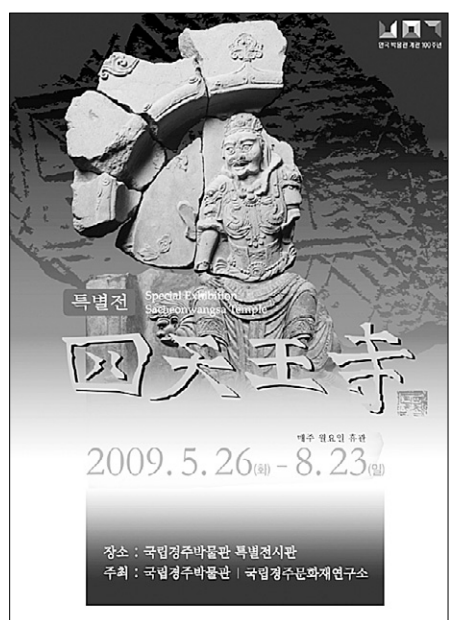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5월 26일부터 특별전 ‘사천왕사’를 개최한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월 23일까지 열리는 전시에는 사천왕사의 역사와 관련 인물, 사천왕사 조사 현황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와 기와, 전, 토기, 금속 제품 등 미공개 사천왕사터 출토품 등이 전시된다.

전시품 가운데 녹유사천왕상(綠釉四天王像)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됐던 것을 비롯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녹유사천왕상들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와 최근에 발굴된 사천왕상 조각들을 90여 년 만에 복원했다”며 “사천왕상의 온전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천왕사(四天王寺)는 신라 문무왕(文武王) 10년(670)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명랑 법사(明朗法



국립경주박물관에서 5월 26일~8월 23일 열리는 사천왕사 특별전 포스터.

師)가 문두루비법(文頭婁秘法)을 행한 곳으로서 문무왕 19년(679)에 창건됐다.

창건 이후 경주의 복을 빌어주는 절로 지정되는 등 조선 태종 때까지도 중요한 사찰로 여겨졌으나 폐사 이후와 시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동섭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안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북, 모듬북·장고·징·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세부상이 많고 편리하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만나고 싶으시다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